

## <제11회 일본경제포럼 개최결과>

1. 개최일시 : 2016. 9.30(금) 13:00~18:00
2. 개최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3. 주 제 : 뉴 아베노믹스 시대, 한·일 시장전망
4.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경닷컴
5.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3:00~	개 회	사회 : 최인한 한경닷컴 뉴스국장
13:00~14:00(60분)	아베노믹스 평가와 새로운 전개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14:00~15:00(60분)	일본 주식시장 전망	유동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15:00~16:00(60분)	일본 건설부동산 시장전망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16:00~17:00(60분)	한일정치외교관계 개선될까	이원덕 국민대학교 교수
17:00~18:00(60분)	주목 받는 일본 농업 혁신전력	이춘규 연합뉴스 국제경제부 박사

5. 참가자 : 計 61명 (협회 회원사 7명)
  - 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KB금융지주 이미진 팀장, 보문(주) 이종애 대표이사 등

## 6. 신문기사

### ① 이종운 부회장 "아베노믹스 개혁 화두는 소득 격차 완화"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시행된지 3년10개월 경과됐지만 경제 지표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강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일본경제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새로운 전개'를 주제로 강연한 이 부회장은 "아베노믹스 이후 고용 및 소득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개인소비와 민간투자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금융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을 총동원한 경기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 부회장은 비정규직의 확대로 노동분배율이 악화된 점을 아베노믹스의 한계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2년에서 2015년까지 3년간 일본 내에서 비정규직은 167만명 증가했지만 정규직은 36만명 감소했다"며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하락하면서 민간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있다"고 분석했다.

성장이 분배로 순환될 수 있도록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소득 격차 완화로 수요를 증대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을 축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를 실현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예산으로 노동훈련센터를 설립해 분야별로 기술·기능을 강화시키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비정규직으로 하여금 임금 인상분에 상응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제 개혁 조치를 한국 경제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구조와 환경이 유사하다"며 "한국도 저소득층의 소비부진이 내수위축의 주원인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향상을 통한 내수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mailto:anhw@hankyung.com)

## ② 유동원 팀장 "日증시 투자가치 있다... 은행·보험 긍정적"



사진=제 11회 일본경제포럼, 유동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팀장, 사진 / 최혁 기자

"일본 증시는 투자가치가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6% 가량 상승여력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여력이 높은 은행 보험 전력 업종에 관심을 가질만 합니다."

유동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전략팀장(사진)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1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잔존가치 모델과 육감모델(6 Senses Model)을 통해 일본증시 투자전략을 소개했다.

잔존가치 모델은 시장 평균 이익 추정치를 기반으로 앞으로 20년간 각국의 지수들이 일정한 자기자본이익률(ROE)를 창출 한다는 가정아래, 미래 20년 가치를 현 가치와 더해 각국 증시 상승 여력을 판단하는 모델이다. 육감모델은 밸류에이션 이익모멘텀 유동성 등을 통해 증시를 전망하는 도구다.

유 팀장은 이 모델을 통해 분석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1만7500대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 이상부터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기 보다는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은 업종에 투자하라는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일본은 높은 국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엔화 가치의 변동성을 고려한 투자전략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업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토픽스(TOPIX)지수에서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종의 상승여력이 각각 16.9%, 10.6% 로 높게 나온다"며 "이외에도 운송장비 음식료 업종들의 상승여력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제약과 소매의 업종 매력도는 13.7%, 36.8% 하락할 것으로 봤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mailto:rrang123@hankyung.com)

### ③ 이상영 교수 "국내 부동산 과도기...리츠제도 정착 필요"



제 11회 일본경제포럼, 이상영 명지대학교 교수, 사진 / 최혁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은 기존 '내집마련'의 주택분양시장에서 상업용부동산시장 및 임대주택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도 일본처럼 리츠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11회 한경 일본경제포럼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변화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맞춰 부동산증권화, 부동산전문투자관리회사의 육성, 임대관리시스템 구축 등 선진부동산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부동산시장은 한국에 비해 개인주택시장이 크지 않고, 전문투자시장과 기업부동산시장의 성장세가 높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제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조언했다.

그는 "일본 건설사들은 부동산증권화를 활용해 자금조달과 부동산 사업 진출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한국도 상장위주의 리츠로 전환하고 앵커리츠를 통한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앵커리츠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앵커)로서 리츠의 자금조달·자산운용을 돕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같은 시기 리츠제도를 도입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화 이외에도 고령자주택, 물류 관광, 제로에너지빌딩 등 다양한 부동산분야에서 이를 활용한 부동산 공급도 촉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 ④ 이원덕 국민대 교수 "위안부 합의는 대일 외교의 큰 성과"



11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원덕 국민대 교수. / 최혁 기자

한·일 과거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사진)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대일 외교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일본경제포럼에서 "이번 합의는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성과"라며 "위안부 문제가 해결 국면을 맞으면서 한일 양국은 우호 협력적인 관계로 복원되고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정치외교관계, 개선되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 교수는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억측과 오해가 존재한다"면서 "논란을 확산하는 것보다 합의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의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강조한 위안부 합의의 본질은 위안부 문제를 외면해오던 아베 신조 총리에게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그는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던 아베 정권 하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우리는 합의를 통해 아베 총리의 사죄 및 반성과 일본 정부로부터 가해 책임 인정,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책정된 10억엔의 배상 조치를 받는 등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합의 이후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낙관했다. 고위급 회담과 한일 통화 스와프가 재개됐고, 대북 안보 협력도 강화됐다. 한일 국민 간의 호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는 "역사 마찰 요인이 사라지면서 한일 간의 국민 감정이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한중일 및 한일정상 회담 등 고위급 회담도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제기된 사드 논란과 북핵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협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의 입장에서 한일 협력은 점차 도래하고 있는 미중 양강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제언했다.

## ⑤ 이춘규 박사 "도요타·소니가 주목하는 일본 농업…비결은 규제 혁파"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1회 일본경제포럼 발표자로 나선 이춘규 박사. / 최혁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농업 혁신을 통해 농업의 지위를 신성장동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요타 자동차나 소니 등 대기업들이 속속들이 농업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춘규 경제학 박사(연합뉴스 국제경제부 기자·사진)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볼스홀에서 개최된 제11회 일본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주목받는 일본 농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이 박사는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통해 4년째 농업 개혁 추진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2039개가 넘는 기업이 농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농업에 진출한 기업 중 성공 사례도 나왔다. 일본 대형 슈퍼마켓 체인 이온(AEON)의 자회사 이온애그리창조는 전국 21개 농장의 350헥타르(ha) 농지에서 채소나 쌀 등을 재배해 판매하는 농업법인으로 성장했다.

종합가스업체 에어워터는 지도세시의 토마토 재배시설에서 2011년부터 재배를 시작해 올해 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 박사는 "난방비용 절약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농작물의 단위 생산비를 줄인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규제 철폐가 기업들의 농업 진출을 이끌었다고 이 박사는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중산간지역인 효고현 야부시와 평야지인 니가타시 등 두 곳을 농업 전략특구로 지정했다. 또 기업이 농지를 가진 농업생산법인에 50% 이상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박사는 "아베 정부의 국가전략특구는 기업형 농업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대규모 영농을 효과적으로 확대시키며 성공적인 농업 혁신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